투자전략 아이디어

배터리 3사 해외생산비중 92.4%가 의미하는 것들

흥국 투자전략
이영원
02) 739-5848
youngwon@heungkuksec.co.kr

한국 배터리 3사 해외생산비중 92.4%, 국내생산비중 7.6%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말 한국 배터리3사의 2차전지 생산설비 중 92.4%가 해외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비중은 7.6%에 그치고 있다. 산업의 태동기에 해당하는 2010년대 국내 생산비중 100%에서 2013년 미국 진출, 2015년 중국 공장 가동에 이어 2018년 폴란드 진출 등으로 해외 생산거점을 확대해 온 배터리 2사의 투자전략은 미국 IRA법의 영향 아래 대미투자가 본격화되면서 해외 생산비중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SK온의 향후 투자계획을 감안한 해외 생산비중을 살펴보면 2023년말 기준으로 해외:국내 비중 94.4%:5.6%에서 2026년에는 98.6%:1.4%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생산시설은 사업초기였던 2018년 서산에 마련한 5GWh 설비에서 더 이상 확장없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 이후 투자는 중국, 헝가리, 미국 등 해외로만 단행되었고 계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배터리업체 미국생산, 2027년까지 현재 설비용량 9배 확대

특히 대미 투자는 SK온 뿐 아니라 배터리 3사가 모두 집중하면서 향후 투자를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 각 언론에 보도된 배터리 3사의 미국(캐나다 포함) 투자계획을 정리해 보면 현재 가동중인 설비는 LG에너지솔루션 45GWh, SK온 22GWh에 불과하지만 향후 계획은 LG에너지솔루션 342GWh, SK온 186GWh, 삼성SDI 97GWh로 총 625GWh까지 증가하게 되어있다. 현 설비용량의 9배를 초과하는 계획이다.

해외 생산 위주의 산업전략은 국내 배터리 3사가 중국 업체들에 이어 세계 2위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하고 있으나 생산 지역에서 한국 비중은 왜소해지는 현상을 낳고 있다. 이는 2차전지 무역, 특히 리튬이온전지의 수출입에서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 지난 2023년 한국의 리튬이온전지는 전년대비 수출이 감소했고 무역수지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내 생산능력이 고정되어있는 가운데 저가형 수요를 중국으로부터 수입으로 해소한 결과이다. 또한 2차전지 세계 무역에서 한국의 수출 비중은 중국, 헝가리, 폴란드에 이어 4위에 그쳤고 지난 2022년 8% 대 점유율에서 2023년 9월까지 누계기준 점유율 6.5%로 하락했다. 폴란드의 경우 LG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공장이, 헝가리는 삼성SDI와 SK온의 공장이 위치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폴란드, 헝가리의 2차전지 수출은 실질적인 국내 배터리 업체의 실적으로 인식해도 무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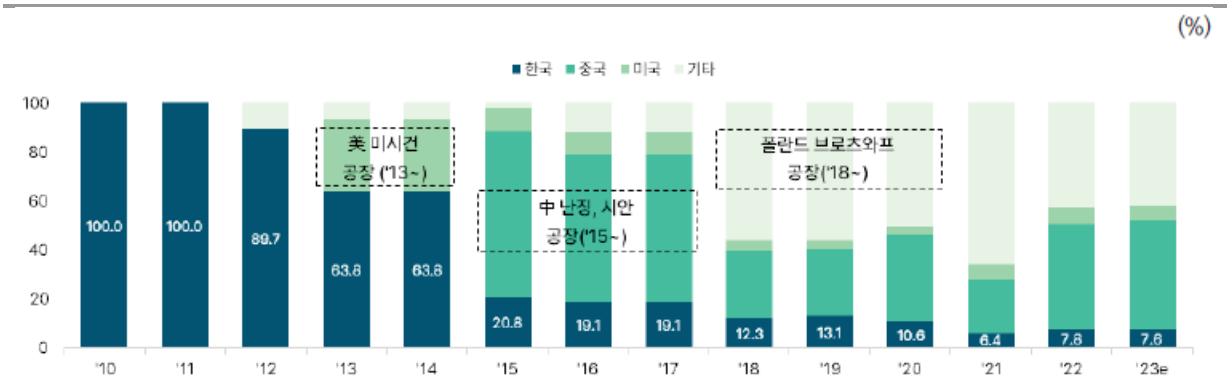
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출시장에서 비중은 6.5%에 불과하지만 전기차용 배터리에서 국내 업체의 점유율은 23.1%로 중국에 이어 2위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중국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 3사의 생산설비는 해외로 집중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주요 업체들은 국내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CATL의 국내 생산비중은 98.2%, BYD의 경우 100%에 달한다. 물론 CATL의 경우도 멕시코, 헝가리 등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도 중국 중심의 생산구조가 유지되는

전략을 택하고있다.

한국 배터리3사의 해외생산은 주요 시장 별 공략을 위한 맞춤형 전략의 결과이다. 특히 IRA법 등 현지 공장설치를 강제하는 규제와 당근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선택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해외 생산 비중이 9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더욱 해외 생산에 집중하는 산업구조는 국내 부가가치 발생을 제한하고, 해당 산업 무역수지 적자규모를 키우게 되며, 지나치게 해외 의존적인 생산구조로 인한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해외 완성차 업체 등과 합작 법인을 통해 생산을 계획하는 경우, 합작 파트너 사의 전기차 전략에 따라 투자 규모나 시기가 크게 좌우되는 상황에도 직면하고 있으며, IRA법에 따른 보조금의 공여 요구 등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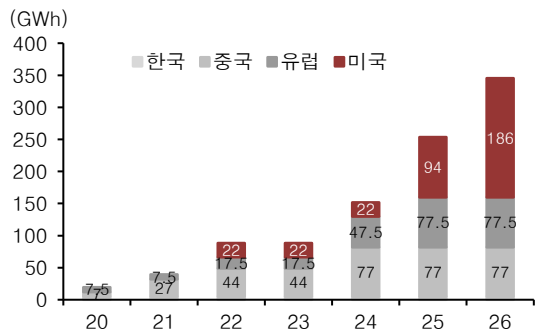
중국, 미국, 유럽으로 대별되는 전기차 시장구도에서 배터리 업체의 투자와 영업에 따른 실적은 각 시장의 성장 속도에 좌우될 수 밖에 없다. 미국과 유럽 시장의 정체가 국내 배터리3사의 영업실적 둔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보다 안정적인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주력 시장의 성장 속도 회복과 더불어 인도, 아세안, 중동 등 시장의 확대와 국내 생산 비중의 증대가 필요해 보인다.

그림 1 **국내 배터리 3사의 이차전지 생산 캐파 지역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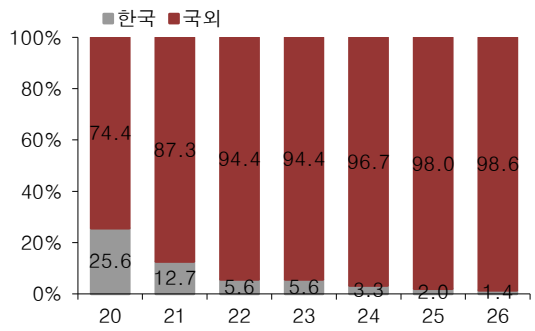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Bloomberg,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SK온 지역별 생산 캐파 추이**



자료 각 언론, SK온,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SK온 이차전지 생산 캐파 국내-국외 비중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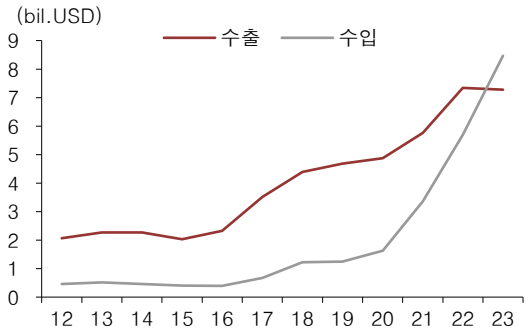
자료 각 언론, SK온,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국내 배터리 3사의 북미지역 공장 현황과 계획**

법인	생산형태 단독/합작	지역	설비용량 (GWh)	가동시기	법인	생산형태 단독/합작	지역	설비용량 (GWh)	가동시기
LG에너지솔루션	단독	미시간	5	가동중	SK온	단독	조지아	22	가동중
			35	2025		현대차그룹	조지아	35	2025
		애리조나	43	2025		포드	테네시, 켄터키	129	2026
	GM	오하이오	40	가동중		계		186	
		테네시	50	2024	삼성SDI	스텔란티스	인디애나 1공장	33	2025
		미시간	50	2024			인디애나 2공장	34	2027
	혼다	오하이오	40	2025		GM	인디애나	30	2026
	현대차그룹	조지아	30	2026		계		97	
	스텔란티스	캐나다 온타리오	49	2025					
	계		342			3사합계		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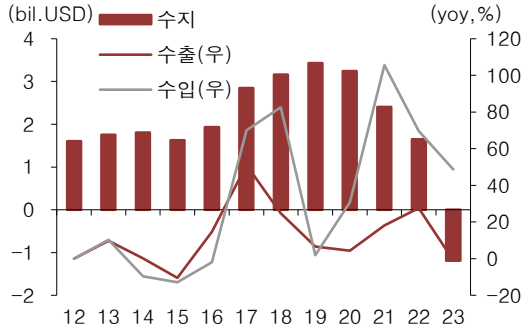
자료 각 언론,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리튬이온전지(870560) 수출입 추이**



자료 KITA,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리튬이온전지 수출입 증가율과 수지**



자료 KITA,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보고서 제공시점 현재 상기 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동 보고서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는 상기 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보고서 제공시점 기준으로 지난 6개월간 상기 종목의 유가증권 발행에 주간사로 참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보고서는 당사 고객들의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신뢰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보고서가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동의없이 무단 복제, 대여, 전송, 변형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흥국씨앗체

본 보고서에 사용된 흥국씨앗체는 흥국의 기업철학 모티브를 반영한 글씨체로서,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독일 '2015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커뮤니케이션 분야 브랜드 아이덴티티 부문 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친근하고 희망적인 느낌의 흥국씨앗체는 고객존중과 으뜸을 지향하는 흥국의 아이덴티티를 부각시킵니다.